

## 우라반다이의 식림사업

1888 년의 반다이산 분화로 우라반다이 지역의 산채 붕괴는 메이지 시대(1868~1912 년)의 일본에 일어난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. 반다이산의 봉우리 중 하나가 산채 붕괴로 발생한 암설 사태로 인해 11 개의 마을이 묻혀 477 명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. 그리고 주변 토지는 불모지로 변해버렸습니다.

이후 우라반다이 지역의 식림사업은 20 세기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. 정부는 이 지역의 식림에 힘쓴 사람에게 저가로 토지를 매매할 권리를 주었습니다. 후쿠시마현 출신의 엔도 겐무(1864~1934 년)는 이 사업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. 엔도는 개통한 지 얼마되지 않은 철도 노선을 이용해 아이즈와카마쓰시에서 묘목을 옮겼으며, 그의 협력자이자 임업가인 나카무라 야로쿠(1855~1929 년)와 함께 13.4 km<sup>2</sup>나 되는 황무지에 수십만 그루를 식림한 것으로 칭송받았습니다. 그들이 최초로 식림한 적송 대부분은 지금도 고시키누마 늪 자연 탐방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의 풍요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.